

기아EV9

압도적 크기

최첨단 성능

안전한 차량



기아가 올해 아쉽게 선보인 국내 최초의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차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아 EV9은 기존 전기차 모델 중 가장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함과 동시에 최첨단 성능을 갖춘 플래그십 모델로,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안전한 차량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18일 기아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EV9은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Danske Motorjournalister)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올해의 혁신상(Innovation Award 2024)'을 받았다.

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방가르디아(La Vanguardia)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Moveo Car of the Year Award 2023)'도 수상했다.

EV9은 또 지난달 30일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드(2023 TopGear.com Awards)'에서 EV9이 '올해의 패밀리카(Family Car of the Year)'를 수상하기도 했다.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로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400/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으며 기아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니티드'를 바탕으로 대담적인 조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차(2024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와 '2024 유럽 올해의 차(European Car of the Year 2024)'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또 '2024 월드 카 어워드(2024 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차·세계 올해의 전기차·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모두 3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인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모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도 EV9은 ▲올해 1월 영국 '2023 왓 카 올해의 차(2023 What Car-Car of the Year Awards)' 가장 기대되는 차(Reader Award) 수상 ▲9월 '2024 독일 올해의 차(2024 German Car Of The Year)' '럭셔리(Luxury)' 부문 선정 ▲11월 '2023 뉴스위크 오토 어워드(2023 Newsweek Autos Awards)' '최고의 프리미엄 SUV(Best Premium SUV)' 및 '최고의 SUV 인테리어(Best SUV Interior)' 선정 ▲아우토 빌드(Auto Bild) '202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2023 Golden Steering Wheel Awards)' '패밀리카(Family Cars)' 부문에 수상하며 출시 첫 해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EV9은 상품성과 더불어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기아는 EV9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유로 NCAP 테스트에서 별 다섯개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한 EV6에 이어 EV9도 최고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우수성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유로 NCAP 테스트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혁신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우수한 성능·디자인으로 잇단 '글로벌 수상' 행진

영국 '2023 탑기어 어워드' 올해의 패밀리카

북미·유럽·세계 '올해의 차' 3개 부문 후보에



기아EV9이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기아 제공)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실시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EV9은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교통약자(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안전성 등 4개평가 항목의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유로 NCAP측은 EV9이 정면과 측면 충돌테스트에서 승객 및 고전압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체 공간이 확보돼 운전자와 동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EV9은 차대차 충돌 및 측면 충돌에서 충격 흡수하고 승객실을 보호하는 차체설계로 어린이 보호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측면 충돌테스트에서는 EV9의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돼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2차 충돌을 방지해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유로 NCAP측은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면 긴급 구난 센터에 탑승자 인원수, 에어백 전개 여부, 충돌 방향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와 충돌 시 자동 제동기능 작동으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등 다양한 첨단 안전 보조 기능이 결합돼 최고 등급의 안전도 획득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기아 관계자는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수많은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는 EV9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 안전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코리아 '스쿨 오브 락 월드 투어' 공식 후원

내년 1월 12일부터 예술의전당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셀렉션'의 11번째 활동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뮤지컬 '2024 스텔 오브 락(Musical School of Rock) 월드 투어'의 국내 공연을 공식 후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스쿨 오브 락은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새로운 대표작이다.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평균 연령 11.5세의 아역 배우들이 노래와 연기뿐만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다.

스쿨 오브 락은 브로드웨이 초연과 동시에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공연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토니상 4개 부문, 드라마데스크상 5개 부문, 외무비평가상, 드라마 리그상 등 주요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올리비에상과 왓츠 온 스테이지상, 헬프먼상, 그린룸상 등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품성을 입증했다.

한국은 '2024 스텔 오브 락 월드투어' 출발지로, 이번 내한 공연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4월에는 부산 드림씨



어터에서 국내 뮤지컬 팬들을 만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셀렉션 공연을 기념해 내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관객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오리지널 콜렉션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오프닝 워크'를 진행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소셜 미디어 및 각 딜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임직원 가족 초청 '웰커밍데이' 개최

기아는 지난 16일 용인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디플러스 기아 웰커밍데이'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기아의 핵심 가치인 '함께, 더 멀리 나아갑시다'를 반영하듯 기아가 후원하는 e스포츠 구단인 '디플러스 기아'와 함께했다.

기아는 지난 11월부터 사내 온라인 게임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기아 사업장에서 115명, 23개 팀이 참여한 한 달 간 예선과 본선을 진행했다.

이날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결승전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방송돼 행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도 온라인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기아의 디플러스 기아 웰커밍데이에서는 사내 리그 오브 레전드 결선 경기 외에도 디플러스 기아 선수단과의 이벤트 매치, 사인회 등을 통해 12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기아 타이거즈 경기장에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기아 타이거즈 웰커밍데이'를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참여형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SUV 인기 여전하네...올 판매 '90만대' 넘을 듯

10년 전 대비 2배 성장...판매 비중도 60% 초과 전망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9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카이스트데이터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외항별 신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레저용 차량(RV)을 포함한 SUV 신규 등록 대수는 85만6천362대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83만7천948대)을 이미 초과한 것이자,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통상 1년 중 4분기의 신차 판매량이 많고 올해 월

평균 SUV 등록대수가 7만7851대인 만큼 12월 기록을 합한다면 올해 SUV 등록 대수는 90만대를 초과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 1~11월 기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연간 SUV 점유율도 올해 처음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SUV 시장은 현재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SUV 신차 판매량은 46만470대에 그쳤다.

판매 비중은 지난 2014년 33%에 불과했으나,

2017년 40%를 돌파했고 2021년 절반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SUV 판매가 세간의 기록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그 격차는 2020년 12만1천대, 2021년 24만2000대, 지난해 34만3000대로 점점 벌어졌다.

올해 1~11월 국산차 차종별 판매 대수를 보더라도 1~10위 중 7대가 SUV였다.

상위권 차종을 보면 1위는 현대차 그랜저였으나, 2위 기아 쏠렌토, 3위 기아 카니발, 4위 기아 스포티지 대부분이 SUV였다.

/연합뉴스

혼다, SUV 올 뉴 파일럿 엠버서더 배우 송진우 선정

혼다코리아(대표이사 이지홍)는 18일 배우 송진우를 8인승 대형 SUV 올 뉴 파일럿의 엠버서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진우는 차량을 지원 받고 향후 1년간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올 뉴 파일럿만의 매력을 선보인다.

송진우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지리산', '힙합여자 강남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로, 연기 뿐만 아니라 예능, 라디오DJ 등 장르를 넘나드는 '올라운더' 배우다. 평소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두 자녀의 아빠로서 일상을 공유하는 등 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공간, 편의, 성능, 안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올라운더 대형 SUV 올 뉴 파일럿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송진우 배우와 이미지가 잘 부합해 새로운 혼다 엠버서더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뉴 파일럿은 올 8월 완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됐다. V6 3.5L 직접분사식 DOHC i-VTEC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강력한 주행



올 뉴 파일럿 옆에 선 배우 송진우.

(혼다코리아 제공)

성과 높은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또 파일럿 특유의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감으로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혼다의 독보적 패키징 기술로 완성한 사용자 중심의 넓고 쾌적한 승차공간과 압도적인 사이즈의 적재공간을 제공하며, 업그레이드된 혼다 센싱(Honda SENSING)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7가지 드라이브 모드, BOSE 프리미엄 오디오 등 각종 편의기능도 탑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3억원 환급

2633명...보험개발원 등서 조회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올해 환급 보험료(12억8천만원)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천만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과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금융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